광주 外高설립 무기연기

市교육청 "보문학숙 재정투자 계획 등 제안서 미흡"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광주지역 첫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20일까지 학교법인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유일하게 설립제안서를 접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숙이 재정투자 계획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기연기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보문학숙이 제출한 설립제안서에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없고 구체적 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런 까닭에 19일 현재 '사립 외국어고 설립 적격심사위원회'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보문학숙은 앞서 설립제안서에서 기존 보문고를 외고로 전환한 뒤 영어를 공통으로 하고 중국어·일어·러시아어·아랍어 등 4개 과를 학급당 35명씩 각 학년에 2개 반씩 편성해 모두 24학급(840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120억대의 법인 수익용 자산을 운용해 얻은 이익금 4억~5억원을 매년 투자하고 ▲그 중 일부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며 ▲기존 100명 수용의 기숙사를 전교생 840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보문학숙이 제시한 재정투자계획 및 투자 규모가 크게 미흡한데다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고 전환에 따른 학교 건물 리모델링 및 기숙사 확장 등 초기비용으로 최소 100억원이 필요한데도 학교법인 측은 기숙사 확장 부지만 마련해 놓았을 뿐, 초기 투자액 중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원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용 자산에서 발생할 이익금 규모가 수억원에 불과해 전액을 다 투자한다 해도 단기간에 명실상부한 외고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교 측이 조성하겠다고 밝힌 장학기금도 인재를 유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라는 게 교육청 측의 진단이다.

시교육청은 또 외고 전환으로 현재 32학급에서 24학급으로 학급 수가 줄면서 발생할 과원(過員) 교사를 교육청에서 모두 수용해주라는 보문학숙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립교사의 공립 특채는 부족한 과목이 있을 때 채용해야 하는데다,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교사수급 계획 차질 ▲신규 교사 채용 기회 박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첫 사립 외고 설립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설립 희망 법인이 한 곳인데다 그마저 투자의욕은 희박하고 지원 요구만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예정된 선정 마감일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오늘도 우산 준비하세요

광주·전남 5~20㎜ 장맛비

20일에도 출근길에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일 광주·전남에 5~20㎜의 비가 더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 선박 운항과 운전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1일에는 비가 잠깐 갰다가 오는 23일께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시간 일기예보를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호우주의보가 내린 여수 거문도는 61㎜(이하 오후 7시 현재), 완도는 54㎜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외 ▲광주 12.5㎜ ▲목포 20㎜ ▲장성 13.5㎜ ▲순천 12.5㎜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장마도 안끝났는데 또 태풍오나"

'개미' 시속 28km 북상

장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5호 태풍 '개미(KAEMI)'가 19일 오후 북태평양 해상에서 발생,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제출한 태풍 '개미'는 이날 오후 3시께 미국 괌 서남서쪽 약 49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28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개미'는 중심기압 1천 헥토파스칼(hPa), 최대 풍속 초속 18m(시속 65km)이며 초속 15m의 강풍이 미치는 반경이 150km인 강도 '약'의 소형 태풍이다. 이 태풍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 쪽 약 1천9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해상에서 열대성 폭풍이 태풍으로 발달했다"며 "현 진로대로라면 대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장마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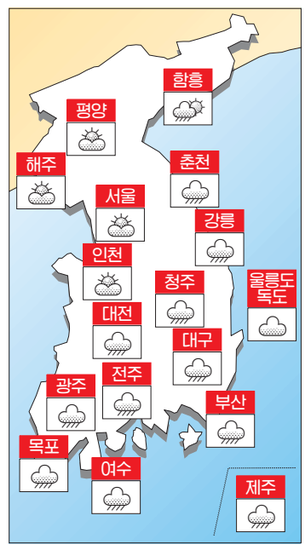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 비 그치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온 뒤 밤에 개겠다.

7월 20일 (음 6월 25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0~26℃
목 포	흐리고 비	22~26℃
여 수	흐리고 비	21~25℃
완 도	흐리고 비	21~25℃
구 례	흐리고 비	20~28℃
해 남	흐리고 비	21~26℃
장 흥	흐리고 비	21~26℃
고 흥	흐리고 비	22~26℃
순 천	흐리고 비	19~27℃
영 광	흐리고 비	21~26℃
진 도	흐리고 비	23~27℃
전 주	흐리고 비	21~26℃
남 원	흐리고 비	22~27℃
정 읍	흐리고 비	21~26℃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9:27 22:42 썰물 02:57 15:07
여 수 밀물 04:29 17:51 썰물 10:52 --:--

▲해뜸 05:32 ▲해짐 19:45 ▲달뜸 00:46 ▲달짐 15: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 씨						
최저/최고	22/28	22/28	23/26	23/27	23/31	23/31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시상

'제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신설된 '새싹그리기 축제'에서는 '예지어린이집'(원장 김영선·가운데)이 종합최고상을 수상했으며 '푸른어린이집'(원장 이근철)과 '어린이나라 어린이집'(원장 최봉훈·오른쪽)이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

오늘 초복…복날 새 트렌드

'녹차먹인 닭' '새싹 채소' '방사로 자란 오리' 등

伏보양식 세대교체 바람

20일은 '삼복더위'를 알리는 초복(初伏). 복날에 먹는 보양식도 최근 진화를 거듭, '녹차 먹인 닭'·'방사로 자란 오리'·전복·장어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양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복날 보양식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영(young)'하고 '프레쉬(fresh)'한 보양식=주부 이연화(36·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초복 식사로 '새싹 비빔밥'을 준비했다. 이씨는 "브로콜리싹·메밀싹·적채싹·부추싹·알파파싹 등은 맛도 좋고 더위 나기에도 좋아 가족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는 영계·송아지고기·어린 돼지고기·새싹채소 등 조금 더 '웰빙'한 보양식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초복에는 역시 '삼계탕'=온라인 마켓 '옥션'(www.auction.co.kr)이 초복을 앞두고 회원 1천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꼽았다. 다음은 개고기(15%)·장어구이(5%)·추어탕(4%) 순이었다.

'빅마트'는 20일 초복을 대비, 광주시내 12개 점포에 총 2만5천여 마리의 닭을 준비했다. '빅마트' 축산팀 박환기 팀장은 "지난해에는 초복을 전후 3일동안 1만5천여 마리가 팔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400여 곳의 보신탕집에서는 복날 평균 4만여 마리의 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伏)날의 유래=삼복(三伏)은 원래 중국의 속절(俗節)로, 개고기를 먹는 풍습도 중국 진·한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복날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었다. 옛날 궁중에서는 벼슬아치들에게 빙과(氷菓)를 나눠주었다 한다.

민간에서는 계삼탕(鷄蔘湯)과 구탕(狗湯, 보신탕)을 먹는다. 또 복날을 흉일이라고 여겨 씨앗 뿌리기·여행·혼인·병 치료 등을 삼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태풍·호우경보 예상땐

전날 휴교 예비령 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기상 특보 발령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태풍경보나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 전날 휴교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발령 당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는 일부지역에서 휴교령이 늦게 내려지는 바람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심지어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악천후 속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지각 또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훼손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무용과 교수가 학생 폭행" 물의

대학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J대에 따르면 체육대학 무용과 발레 전공 학생 14명이 최근 "B교수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며 진상조사와 교수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지난 7일부터 개교기념 공연(9월 예정) 연습을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B교수가 스틱이나 슬리퍼로 뺨과 등을 때리고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해 굴욕감을 줬으며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지난 4월 각각 학생들 명의로 은행통장을 만들게 한 뒤 비밀번호까지 적어 교수에게 제출토록 해 개인당 20만~50만원의 출연료를 가져갔다"며 "이 돈을 의상비·간식비 등 공연을 진행하는 데 썼다 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교수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출연료 명목으로 나온 돈에 사비까지 더해 학생들의 부담 없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실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B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일본에서 돌아온 실록 오대산사고본 국보 지정키로

일본 도쿄대로부터 기증 형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9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위원장 안휘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오대산사고본을 국보로 지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이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 유산이다.

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은 30일 이상의 지정예고 기간 후, 9월께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분과에서 국보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정교한 합격서적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내교 우리의 최고 강사진이 진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곽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생한 현장강의를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팀 | 영어 송 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팀 | 공통과학 장영민팀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 육 내 용	개 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 개론 1차 중심반	7월22일 주말반
주택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 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개강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훈련수강신청서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새롬스쿨 ■도청외환은행)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전남여고 앞 : 3, 11, 27, 38, 55, 111, 118
■예술의 거리입구 :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농산물품질관리사 | 원예학개론, 농산물 유통론관계법규 | 자비유료과정
현대직업전문학교
위 치 : 전남여고건너편 (구MBC)
☎ 224-4560, 236-2467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8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
8월 1일 개강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좌를 통해 최종 합격점검을 할 수 있는 강좌임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 원서접수 받습니다. "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8번출구

hanbitgosi.co.kr
"10월 1일 선관위"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9급 문제풀이반 개강 1차 : 8월 1일 마감임박 2차 : 9월 1일 예약필수
7·9급 공무원 이론반 - 짝수반/홀수반 때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앞 (서울고시학원 바로 앞) ☎ 234-0234